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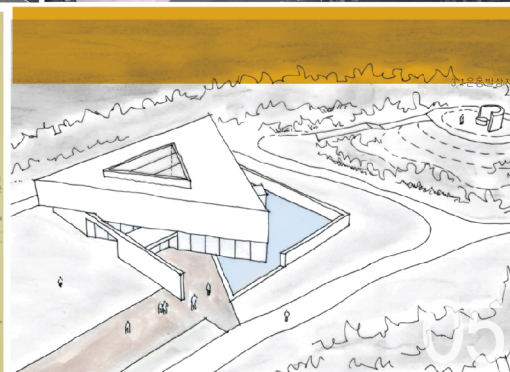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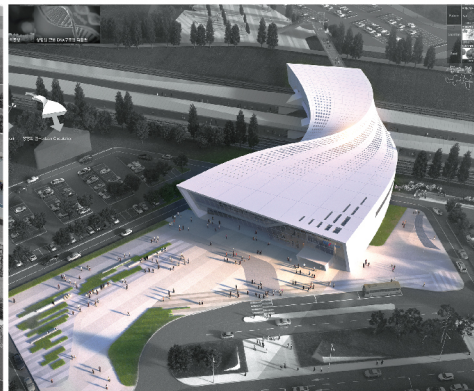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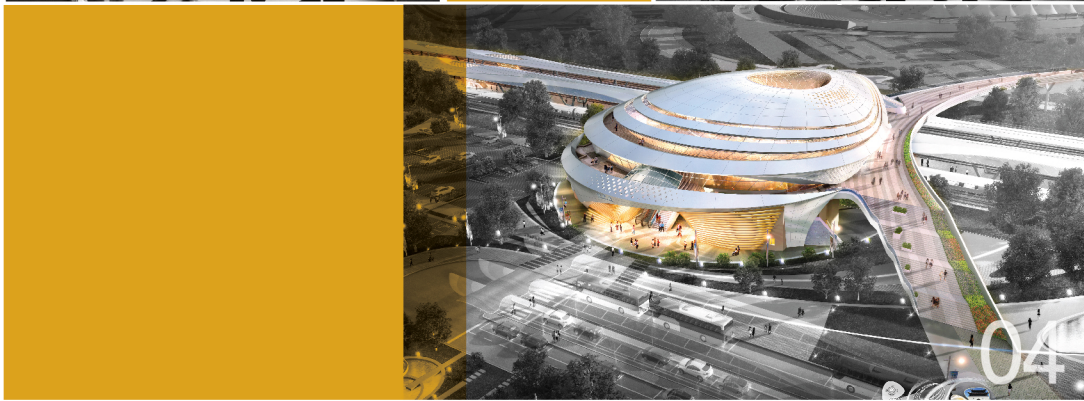
News 2016.05

078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55 T 062.521.0025 F 528.0026

May

- 02 시론**
 건축사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첫 심을 들다
- 03 핫이슈**
 2016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행계획 수립을 위한
 발행인 및 편집위원 합동회의 개최
- 04 설계경기**
 호남고속철도 니주역사 증축 기타 설계
 당선작&우수작&가작
- 05 설계경기**
 군산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 건축설계
 용역 제안공모 당선작&우수작
- 06 사람 & issue**
 고진김래(苦盡甘來), 건축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두필 건축사와의 만남
- 07 대학뉴스**
 사랑에서 열여덟... '백세인생' 박흥근 지문위원
 건축사 만평
- 08 NEWS**
 - 전북 전주건축사회, 전주완산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 201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장소공고
 -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공고
 - 광주건축사회,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과 연달아 협약 체결
 - 제2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 축구대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 상반기 산행 안내
 - 전북건축사회 건축사실무교육(윤리) 공고



건축사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첫 삽을 들다!



김영수 이사장 / 건축사
건축사공제조합
(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

우리 건축사들의 염원이었던 건축사공제조합의 법인 설립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를 통해, 조합의 독립성 및 책임경영 확보 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공제조합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임직원 모두는 건축사공제조합이 건축사의 든든한 사업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건축사공제조합이 나아가는 길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건축사공제조합의 새로운 시작”

지난 3월 11일, 제6회 정기총회와 (가칭)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정기총회에서 건축사공제조합 법인설립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이어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새로이 설립될 공제조합의 정관(안)과 공제·보증규정(안),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공제조합은 이제 대한건축사협회의 품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인으로 태어나게 된다. 지난 십 수년간 우리 건축사들의 염원이었던 건축사공제조합의 법인 설립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 하겠다.

공제조합은 법인설립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게 하며, 조합의 독립성 및 책임경영 확보, 회계 처리 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공제조합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에 따른 제반 이익에 대해 조합원에게 배당금도 지급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위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적성장 및 출자지분 상승”

그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조합원의 성원으로 2011년 조합원 2,532개사, 출자금 28억여원으로 시작하였지만, 2016년 4월말 기준 조합원 6,938개사, 출자금 159억여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더욱이 2016년도에는 1좌당 110,850원이었던 출자지분이 118,320원으로 상승되었다. 비록 법인이 아닌 상태라 배당금을 지급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법인설립이 되고나면 총회의결 후 일부 배당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공제조합은 작년에 미흡했던 점들을 더욱 보완하고 경영 내실화에 힘써 올해에는 조합원 7,000개사, 출자금 170억원, 총 매출 68억여원을 달성하고자 한다.

“법인설립 진행과정 및 남은 절차”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12일 시행되어 건축사공제조합의 법인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협회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 지 4년 7개월만에 법인으로서는 금융·보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발기인 대회(2016. 2. 26)와 창립총회(2016. 3. 11)를 거쳐, 지난 3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법인설립인가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설립인가 후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자산 및 업무를 승계받고, 사무처 조직 등의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정비하여 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건축사를 위한 전문 보증·금융기관”

공제조합은 앞으로 건축사를 위한 전문 보증·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미래성장고 객감동, 조직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다. 공제조합의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건축보증시장 점유율 1위·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공제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고객감동을 위해서는 최고의 금융서비스 제공·대외 신인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의 전략실행력 확보를 비롯하여 효율과 성과 중심의 경영관리·리스크관리 및 자산운용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3단계 실천과제”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3단계 실천과제를 세우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우선 1단계, 법인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브랜드 강화, 공제사업 경쟁력 제고, 관련법과 조직 재정비,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법인설립에 맞춰 공제조합의 상징인 CI를 제작하였다. 새롭게 통합된 공제조합 이미지를 내·외부로 공유함으로써 공제조합의 정체성 확립 및 브랜드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법인설립 후의 홍보활동의 효과도 배가될 것이다. 새로이 제작된 공제조합 CI에 따라 조합기, 서식 등 각종 표식도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공제조합의 영문표기 또한 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Financial Cooperative」에서 「Certified Architects Financial Cooperative」로 변경하였다.

2단계는 시장 확보와 성장 동력 마련 기간으로 건축사 전원 공제조합가입, 성장 동력 실천 강화, 신상품 개발 등 사업 다각화, 보증과 용자업무 확대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수익의 90% 이상이 손해배상공제업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공제조합의 발전을 위해 보증업무를 보다 활성화할 것이며, 조합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제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규 투자사업을 모색하여 새로운 수익기반을 마련하고, 대형 건축사사무소 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마지막 3단계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공제조합으로 입지를 굳히는 것이다. 공제조합의 가치 향상과 건축사가 주인인 공제조합 확립, 연수원·교육원 설립, 대안투자처와 사육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원과 소통하는 공제조합”

지난 4월 15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제30대 시·도 건축사회 회장단 회의에 초청되어 공제조합 업무설명회를 통해 시·도 회장단과 소통하고 홍보활동을 하였다. 공제조합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설명회에서 다시 한번 체감했으며, 업무설명회와 같은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다. 초창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신설공제조합의 임원으로 새롭게 선임된 8명의 이사가 공제조합 업무에 대한 안내와 홍보, 가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 건축사회 등 지역을 각각 전담제로 하여 조합원에게 직접 찾아가는 홍보·행정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에 대한 설명이나 업무안내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공제조합의 문을 두드려주기 바란다.

또한 공제조합은 항상 조합원의 건의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열린 총회에서 증서 발급 시 PDF파일 등으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4월 4일부터 손해배상공제증권을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빠르게 개선하였고, 홈페이지에 안내하도록 조치하였다. 다만, 제 보증서는 수요가 많은 종류부터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년 6월까지의 완료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린다. 업무에 개선할 점이나, 건의할 사항은 기탄없이 개선해 주시고, 공제조합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같은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업무개선을 통해 조합원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공제조합을 만들고자 한다.

조합 임직원 모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킴이로서, 건축사공제조합이 건축사의 든든한 사업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조합원 모두는 이제 시작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나아가는 길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2016 MIDAS TECHNICAL CONCERT

마이다스 디자인 솔루션, 새로운 CAD 환경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2016.05.10 - 06.21 11개 지역

AGENDA 01

Session 1 마이다스 디자인 솔루션, 설계 환경을 바꾸다.
건축계획/구조계획 : 정보기반의 새로운 CAD 환경에서 펼쳐지는 디자인 혁신

Session 2 마이다스 디자인 솔루션, 도면 작성을 바꾸다.
구조도면/건축도면 : 구조 디자인 솔루션과 정보 CAD가 만들어 내는 드로잉 혁신

Session 3 예비 고객을 위한 마이다스 디자인 솔루션, 나는 이렇게 활용한다. 마이다스 고객을 위한 midas information CAD 실무 활용 가이드

행사일정-지역 02

5 May	6 June
10일 원주 호텔인터불고 원주	1일 천안 세종웨딩홀
1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 대전	2일 인천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19일 청주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	8일 수원 이비스 엠베스터 수원
24일 일산 엠블호텔	14일 강북 그랜드 엠베스터
26일 강남 서울라마다호텔	16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21일 전주 전주 르윈호텔

세미나 신청방법 - www.midasArchi.com/seminar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관련문의 - 신종환 031 789 4257

2016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행계획 수립을 위한 발행인 및 편집위원 합동회의 개최

- 지난 4월 27일 전북 전주시에서 개최, 전남·전북 공동 발행인 15여명 참석 - 지역지면 개설 및 편집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확정, 신임 편집인과 편집위원 위촉식도 진행

지난 4월 27일 전라북도 전주시 서신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2016년 본지 발행계획 수립을 위한 발행인 및 편집위원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본지 전임 편집인과 일부 편집위원의 임기가 지난 4월 10일 만료되어 신임 편집인과 편집위원의 취임으로 새로운 편집방향성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신임편집인과 편집위원 위촉식 진행

이날 대표발행인인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고, 공동발행인의 전남건축사회 박용묵 회장(다산 건축사사무소)과 전북건축사회 전병갑 회장(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이 참석했으며, 광 주지역 편집위원에 정명환 편집인(디에이건축사사무소)과 강동영 부편집인(주)청어람알앤씨 건축사사무소), 정관성(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임태형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플랜)가, 전남편집위원으로 박종호 부편집인(유민 건축사사무소)이, 전북편집위원으로 양우현 부편집인(백현 건축사사무소), 윤미순(미 건축사사무소), 양창근(양창근 건축사사무소), 최정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제이엠)가, 자문위원으로 서재형 전임편집인(건축사사무소 선)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합동회의는 발행인 격려사와 신임편집인 인사말, 위촉장 수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격려사를 통해 전남건축사회 박용묵 회장은 "2009년부터 발행된 이래 우리 호남 지역의 건축문화를 알리고 대변하는 건축전문지로써 자리매김하는데 편집위원들의 공이 가장 컸다"고 격려했으며 전북건축사회 전병갑 회장은 "앞으로 우리 건축인들의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위촉장 수여식에는 정명환 신임 편집인과 광주지역 강동영 부편집인, 임태형, 양창근, 최정미 신임 편집위원, 서재형 신임 자문위원에게 3개 시·도 건축사회장 명의의 위촉장이 전달됐다.

② 기존 발행 과정의 문제점

- ▶광주지역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발행함에 따라 공동발행처인 전남지역과 전북지역의 주요 소식들을 제때 담지못해 호남권 대표 건축 정보지라는 의미가 퇴색됨
- ▶광주지역 외 해당 지역 편집위원들의 기자활동 등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음
- ▶발행 예산비중이 한 지역으로 편중됨(2015년 전체 분담금 기준 광주 50%, 전남 23%, 전북 23%)
- ▶창간호부터 매년 한 지역건축사회가 광고 80% 이상을 수주하고 있어 해당지역 건축사회에 광고 수주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있음
- ▶창간 발행 이후 고정된 편집 구성을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가 부족함에 따라 구독독자인 광주, 전남, 전북 건축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③ 개선방향에 따른 협의내용

- ▶지역별 지면 개설(전남/전북 각 2면씩)
지역별 지면 개설에 대해 전남, 전북건축사회 공동발행인 모두 찬성했으며, 현 표지 부분의 활용을 위해 사실을 배치하도록 했다. 해당 발행 월의 주요내용으로 1편을 게재하되 논설위원 위촉 범위 등 구성 부분은 3개 시·도 공동발행인에 위임하기로 했고, 회원 다수의 참여를 위해 각 지역별 회원 작품 참여 지면을 만들어 게재 기준을 정하고 많은 청년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지면 편집권은 각 지역의 발행인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이 모든 준비과정을 거쳐 7월 10일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편집위원활동비 지급 및 발행인 명의의 공로패 수여 실시
편집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장려를 위한 편집위원활동비를 개인별로 격월마다 지급하기로 했으며, 향후 각 시·도별 정기총회시 왕성한 활동의 편집위원과 더불어 우수한 활동을 한 학생기자들에게 공동발행인 명의의 공로패 수여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 ▶지역별 지면 개설과 편집위원활동비 증액에 따른 광고 수주 계획 수립
위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향이 반영되기 위해 본지 전체 발행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광고 수주에 발행인 및 편집위원 모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합의했으며, 특히 지역별 지면 개설에 따른 지역광고 수주를 위한 노력이 공동발행인 모두 필요함을 공감했다.
- ▶분담금 납부액 증액 요청에 따른 예산반영
공동발행인인 전남, 전북건축사회 회장 모두 분담금 납부액 증액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고, 특히 전북건축사회는 분담금 증액을 포함한 예산을 지난 2016년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기존 발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합동회의의 간담회에서는 2009년 11월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발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내용의 토의가 진행됐다.

① 기존 발행 과정

- ▶2009년 11월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월 2회 편집위원회회를 개최하여 1차 원고 및 지면 구성 회의와 2차 가편집본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인쇄 및 발송 처리하고 있음



박용묵 공동발행인 인사말



전병갑 공동 발행인 인사말

합동회의 마무리에서...

정명환 신임 편집인은 합동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7년간 역대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위원들이 본지의 발행 목적인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을 형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동시에 수많은 호남지역 건축사회원들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발행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또한 "오늘 합동회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 건축사회원들에게 더욱더 다가가고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월간지가 되도록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적용될 지면은 오는 7월 10일자부터 반영되어 독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임에 따라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바라본다.

2016년 신임 편집위원 소개



임태형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광주

2년 전 서울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에서 터를 잡아 갈 즈음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속에서도 유독 '사랑'지 만은 묘한 편안함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지만 협회와 회원, 회원과 회원 그리고 건축계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지면에 빠져들어 시나브로 그 속에 있는 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랑'지를 '소통의 의지이자 헌신'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앞서 편집위원으로서 역할을 부여 받은 후 두 차례 편집회의에서 관계자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애정이 사랑 지의 필요충분조건임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책임감과 능동적 자세로 미력이나마 보태어 더 발전하는 사랑 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근 건축사
양창근 건축사사무소 /전북

어느날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님의 한통의 전화를 받고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으로 활동해보라고 권유하셨을 때 설레임과 두려운 마음으로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여성들을 맞이하고 과도기적 성장 국면에 들어서신 때, 선임 편집위원들을 도와 미력하나마 신문 발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호남에서 활동하시는 건축사님들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이들에게 객관적인 내용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신문이 되는데 일조할 수 있는 편집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가 아닌 '건축문화사랑' 지를 제작에 참여하는 편집위원으로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편집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제이엠 /전북

삼속에 녹아 흐르는 건축을 꿈꾸며 달려왔던 시간 속에서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건축문화사랑' 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호남 건축인들의 건축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희망하며, 그 역할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이라는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고, 부족하지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편집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사랑'을 통해 많은 건축인들이 건축의 본질과 마주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호남고속철도 나주역사 증축 기타 설계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 변경(2015.9.7.)으로 나주역은 기존역 활용에서 개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나주역사에 대해 상징성·예술성·기능성 등 도입으로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해 설계공모를 시행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김중문 건축사
 우수작 : (주)백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명진 건축사
 가작 : (주)헤원까지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진철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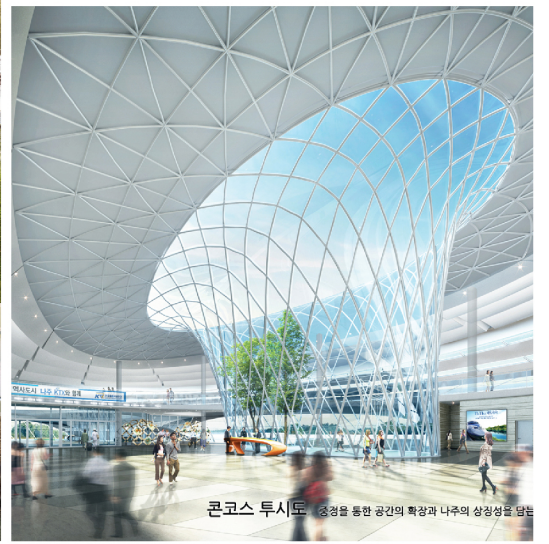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409-1
 대지면적 : 15,000㎡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 2,847.37㎡
 연 면 적 : 4,436.85㎡

건축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3층
 건 폐 율 : 18.98%
 용 적 륜 : 22.52%
 주차개요 : 179대(장애인 5대 포함)/자전거 주차 59대

주요마감 : 로이2중유리, 칼라강판(지정색)
 조경면적 : 13,800㎡
 설비개요 : 경관조명/지열, 태양광 집광판/우수재활용

당선작

김중문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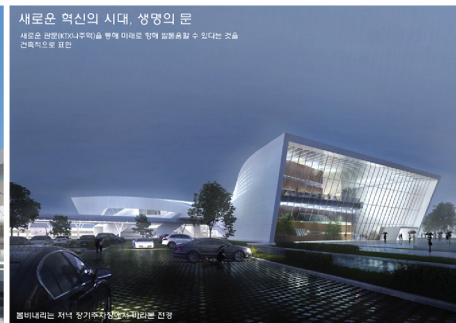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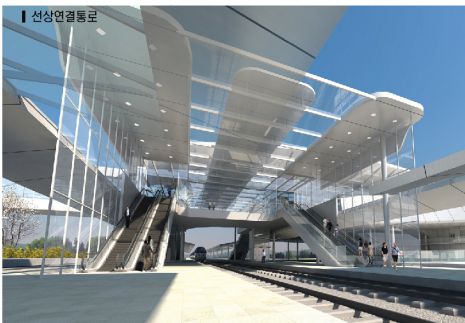
우수작

이명진 건축사 / (주)백림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작

서진철 건축사 / (주)헤원까지 종합건축사사무소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 건축설계용역 제안공모

당선작 : (주)리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김남중 건축사
 우수작 : 브이오에이 건축사사무소 김승훈 건축사

본 공모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건축물로 설계하기 위하여 설계자의 능력이 중요함에 따라 업무 이해도, 제안과제, 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공모 방식으로 추진함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영명길 29(구암동 358-2) 연 면 적 : 1,302.2㎡
 대 지 면 적 : 12,509.00㎡ 건축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지 역 / 지 구 :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비행안전제3구역
 예 정 공 사 비 : 30억원
 규 모 : 지하1층/지상 2층

당선작

김남중 건축사 / (주)리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근대문화역사가 살아 숨쉬는 '군산3.1 운동 체험교육관'
 군산 3.5만세 운동의 중심지 구암역사공원, 자라나는 후손들의 독립운동 정신과 호국보훈의 산 교육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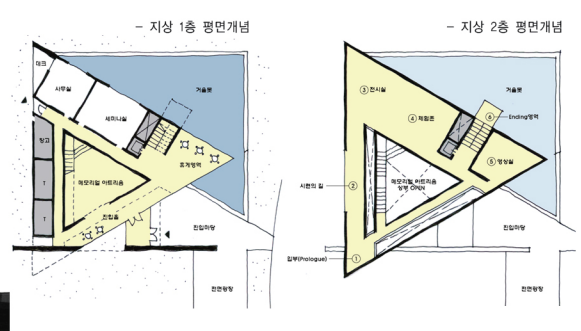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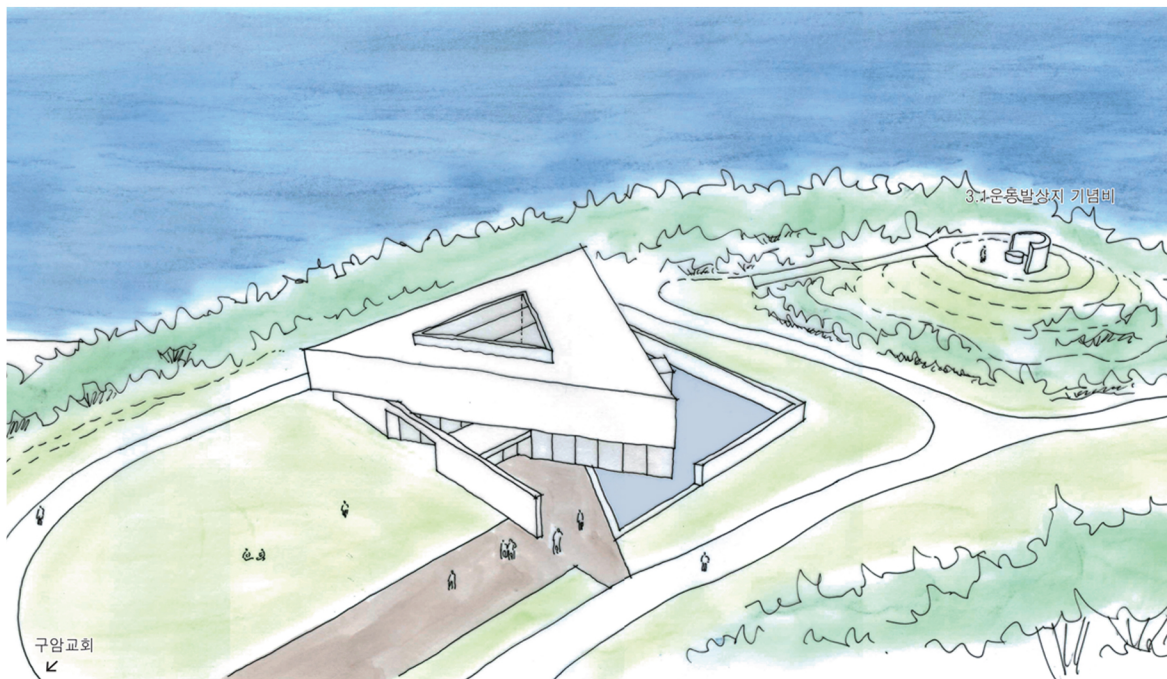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태극기 8개로 개념화하여 외부에 표현함.

마감재료는 구암역사공원의 역사성을 고려, 영명학교 일본단여학교, 구암교회에 볼 수 있는 석재와 벽돌을, 주재료로 기둥과 외벽에 사용하고, 지붕은 산화동판활 사용함.



우수작

김승훈 건축사 / 브이오에이 건축사사무소



고진감래(苦盡甘來), 건축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두필 건축사와의 만남

전라북도 군산의 두산 건축사사무소 이두필 건축사는 건축사가 되기 전 국내의 한 대형 건설사에서 15년 가까이 해외 파견 근무를 하며 엔지니어로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나갔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순탄한 길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건축사면허를 취득하여, 1997년 IMF 직전에 사무소를 개업하면서 고난을 겪기 시작했으며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건축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그 고난을 이겨냈다고 한다. 다음은 지난 4월 27일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다.



전북 군산 / 두산 건축사사무소 이두필 건축사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졸업후인 82년도에 두산건설에 입사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 건축사사무소 보수기준이 너무 낮아 건설회사로 진로를 잡았고, 약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현장 소장도 하고 중간 간부까지 지내다가 94년에 퇴직을 했는데 그곳에서 4년은 이집트에서, 2년은 사우디에 있었고 나머지는 본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2~93년도 즈음 이집트 카이로 아스완이라는 지역에 500억 규모의 호텔이 입찰되어 회사에서는 저를 불박이로 묶어 두려고 했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해외 떠돌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그만두고 설계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96년 12월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97년 2월에 사무소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 군산에 개업을 하고 한동안 큰 후회를 했습니다. 동기들은 임원을 달며 큰 성공을 해나갔고 큰 발전이 없었던 저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빠져 들었습니다. 특히 개업하고 얼마되지 않아 IMF를 겪으며 우울증까지 생길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지금은 여유가 조금 생겨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 웃음을 냅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존경하는 건축사로는 두산건설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던 경기도건축사회 회원 김종춘 건축사(하원 건축사사무소 운영)님을 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할 당시에는 이집트 카이로 라일강 근처 웨라톤 호텔 공사 현장소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회사에 나와 1년 안에 시공기술사와 건축사면허를 한꺼번에 취득하신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건축사 면허 취득을 위해 그분의 밑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히 그분의 기술자에 대한 철학을 존경했습니다. '건축사를 포함하여 모든 기술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금품을 받고 눈감아 주고 양심을 파는 기술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고 하시며 관련 업체에서의 청탁이나 돈을 절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 또한 그 영향을 받아서 인지 직원들에게 기술자로서의 양심을 강조하며 업무와 관련한 금품을 일체 받지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조직폭력배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여 큰일날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직폭력배는 지하층 150평 정도되는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변경 후 콜라텍을 만들려고 한다며 문의를 했고, 저는 지상 8층, 지하 1층 건축물로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위락시설을 한다는 내용이어서 가능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건축물은 6층부터 7층과 8층 사이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 각각의 집합건축물이 놓여져 있는 불법건축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양성화를 위해 20명이나 되는 집합건축물 건축주들을 만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그 당시 IMF로 폐업을 하고 도망간 건축주들이 있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해결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아찔했던 기억입니다.

기타 사회활동에 대해...

제가 익산지역에서 성가대 활동과 합창단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전문분야에 대한 취미 활동 한가지 정도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술도 좋고, 카메라나 악기를 다루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 및 포부

나이를 어느정도 먹으니 큰 계획이나 포부는 없습니다만, 향후 실버 합창단을 만들어서 지위를 하며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계획이고 포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취재 : 정명환, 양우현, 윤미순, 양창근, 최희미 건축사기자
정리 : 광승국 기자 gjkira@empas.com



지난 4월 27일 군산시 조촌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모든 건축사님들이 사무소를 개업하면서 건축설계 활동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 매일 돈 걱정에 신경을 써야 하니 진정한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한달 중 가장 좋은 순간이 직원들은 다 보내고 혼자 앉아 스케치하며 건축주가 의뢰한 것에 밤새 고민을 하고, 날이 새어 햇빛이 창문 넘어 드리워질 때 건축사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입니다. 건축심의위원을 하면서 건축사들이 가져오는 계획안을 보면, 설계 건축사가 건축주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고민한 건축사들은 100명 중에 10~2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축사로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기술적인 고민들을 해야하는데 많은 건축사들이 그런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들은 모두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신껏 했다고 자부하며, 그러한 부분들이 건축사로서의 기본 소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97년도 사무소 개업 당시, 일은 없고 허구헌날 노는 것이 일이 되어버려 빛은 쌓여져 갔고, 어떻게든 버티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IMF를 겪으며 많은 건축사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설계비와 감리비 대가를 확 줄이기 시작하더니, 예전 받았던 대가의 절반을 받으며 근근히 버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직업인으로서 저 자신이 자존심이 상했고, 그게 빛을 쌓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긍지와 자부심으로 끝까지 버티나갔고 그로부터 7년 후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설계, 감리를 제대로 하려면 저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고, 그러다가 2007년도에 아무 연관도 없던 현대중공업에서 저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군산 지역 50만평 규모 조선소의 감리와 인허가까지 맡기며 2년간 큰 대가를 받고 업무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빛이 쌓여도 자존심을 잘 지켜 잘 참으며, 소신껏 기다린 보람이 드디어 빛을 보느라 싶어 저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웠을 때는 젊었을 때 행정적인 것과 법적인 것에 대해 경험이 많지 않아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드신 건축주께서 며느리에게 유치원을 지어주려고 하여 택지지역의 땅을 저의 말을 듣고 샀다가 택지개발촉진법과 관련해 허가가 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주께서는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시며 이해를 해주셨고, 결국 유치원이 아닌 놀이방으로 대처하게 하였습니다.



< 이두필 건축사 작품 >

신도아파트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감리



동부교회



세장리주택



수송동 근린생활시설



중화산동 근린생활시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 관계 명사초청특강 진행해

- 지난 5월 4일 공대2호관 1층 강의실에서...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강연



전남대학교 건축학부는 지난 5월 4일 공과대학 2호관 1층 강의실에서 건축공학전공 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관계 명사초청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건축공학전공 고성석 교수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정명철 회장에게 요청하여 이뤄졌고, 주요강의 내용은 건축공학전공 학생들이 건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들이 소개되고 설명되는 내용들로 진행됐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정명철 회장은 학생들에게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고 말하며 "전공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실력을 쌓는다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모교 졸업 선배와 함께한 '특별할 것 없는 강의'

- 지난 5월 4일 교내 강의실서 이승 건축사사무소 송옥자 대표 초빙 강연 진행



지난 5월 4일, 오후 강의시간을 활용하여 '선배의 특별할 것 없는 강의' 가 진행됐다. 이번 특강의 강사로 본 대학을 졸업하고 건원 건축과 정림 건축에서 업무를 하다가 현재 이승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송옥자 대표를 초빙하여 학생들과 뜻 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특강의 내용은 송옥자 대표가 실계를 했던 작품들을 보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평소에 궁금해 했던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을 해주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남녀 학생들로 구분되어 질문이 쏟아졌는데 남학생들은 '메이저 회사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나요?', '제가 디자인한 건물이 구현화 될 기회가 있나요?', '회사에 취직을 하면 야근과 철야가 많나요?'라는 질문을 했고, 여학생들은 '여성에 대한 기회는 평등한가요?', '남학생을 좀 더 선호하나요?' 등의 질문을 했다. 송옥자 대표도 이러한 질문들을 예상 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당황한 기색 없이 해주었다.

다수의 질문과 답변 중 인상에 남는 부분이 '본인이 디자인한 건물이 구현화 될 기회가 있나요?'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당장 출업을 하고 취업해서 자신이 디자인한 건축물이 구현화 될 가능성은 힘들다"고 답하며, "회사의 규모와 특징에 따라라도 구현화 될 시기 또한 달라진다"고 했다.

또한 "아틀리에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가면 어느 정도 경력이 되었을 때 자신이 디자인한 건축물이 구현화 될 수 있다"고 했고 "메이저 회사들과 중소 기업에서는 아틀리에보다 빠른 시기에 구현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정 수준 경력을 쌓고 교육을 받아야만 자신이 디자인한 건축물을 구현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답했다.

다른 질문들에도 좋은 답변을 해주었고 강의를 마치면서 추가적으로 격려를 해주었는데 "건축학과라고 해서 디자인에만 모든 시간을 쏟지 말고 구조, 설비, 조경 등 건축과 관련 있는 학문 지식 습득 또한 중요하다"고 했고 이와 더불어 "꾸준히 스케치 연습을 하라"는 말을 전하면서 송옥자 대표와 함께하는 '특별할 것 없는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다수의 학생들은 "평소 궁금해 했던 질문에 답변을 받아서 알찬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이동환 학생기자 donghoal2345@naver.com)

제29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개최

- 건축분야, 오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접수받아



광주광역시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와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가 공동주관하는 제29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의 출품작품을 오는 6월 18일까지 접수받는다.

응모부문은 한국화 · 서양화(수채화 포함) · 판화 · 조각 · 공예 · 서예 · 건축 · 미디어 · 문인화 · 디자인 등 10개 부문이다.

부문별로 대상에게는 각각 광주광역시장상과 상금 500만 원이, 부문별 최우수상에게는 광주광역시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시상된다. 작품 수준에 따라 대상작품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면 누구나 1인당 2점까지 출품 가능하며, 출품료는 1점당 50,000원이고 동일부문 2점 출품자는 80,000원이다. 특별히 건축은 3인 이내로 디자인은 2인 이내로 공동작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와 심사는 각 분야별로 다르며 시상식은 7월 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최되고 입상작 전시기간 및 장소는 시상일로부터 5일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062-222-8053)와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010-3638-9183)로 문의하면 된다.

사랑에서 _ 열여덟

백세인생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써 국가경쟁력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풀어가야 할 커다란 문제다.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 시작, 평균수명이 늘어난 고령인구 등등은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간은 생노병사(生老病死)를 한다. 태어나서 나이 들고 아프다가 다시 되돌아간다. 이게 인생 사이클이다. 그런데 현재는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나이 들고 아픈 사람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 만큼 되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사람이 많은 것이다.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되돌아가는 순서는 없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 즉 죽음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 아마 그래서 일까 '백세인생'이라는 노래가 인기다.

작곡가 김중완씨는 1995년에 친구의 아버지가 50대에 돌아가시자 그 자식들이 애타게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사를 썼다. "육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 칠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 팔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 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 구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 백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참, 내용이 현 고령사회에 인간의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 요즘 60세는 청년이라 한다. 70세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 80세에도 사회활동에 별 무리가 없는 분들이 여럿이 많다. 원래 제목은 '저세상이 부르면 이렇게 답하리' 였고, 당초 가사에는 100세까지밖에 없었는데 장수 고령시대에 맞춰 150세 가사를 새로 추가해서 '백세인생' 이라고 했다 한다.

그러나 인간은 노래 가사처럼 하늘에서 정말로 데리러 왔을 때 "...전해라" 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기에 '모멘토 모리(mo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삶을 더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4월 27일) 저는 1916년에 태어나 백세인생을 사신 제 아버지와 이별을 했다. 95 세까지도 정정하게 시대를 돌아다닐 정도로 건강하셨다. 그러다 100세가 되는 해에 '좋은 날, 좋은 시' 에 저세상으로 돌아가셨다.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가셨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줄이기에 오늘 하루도 '모멘토 모리' 를 생각해 본다.

되돌아가는 순서가 없고 언제인 줄 모르니 지금,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그러나 즐겁고 행복하게, 미루지 말고, 쿨하게 그리 살아보자.

〈박홍근 자문위원 aforyou@naver.com〉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에디터그룹



| 광주건축사회 2016년도 |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공지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16년도 건축사실무교육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교육 신청바랍니다.

- (1) 실시근거 : ①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건축사의실무교육)
- (2) 실무교육 계획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예정)	장소	교육시간	교육비
5월	31일(화) 14:00~16:00	전문	건축·도시정책 및 실무의 이해	안용훈 국장 (광주광역시)	5층 대강당	2시간	30,000원
	31일(화) 16:00~18:00	전문	알면 힘이 되는 세무상식	이철웅 계장 (광주지방국세청)		2시간	30,000원
6월	28일(화) 14:00~18:00	전문	건축물 구조설계 및 응용프로그램	이강석 교수 (전남대 건축학부)		4시간	60,000원
7월	26일(화) 14:00~16:00	전문	지식재산의 이해	변중진 변리사 (변중진 특허법률)		2시간	30,000원
	26일(화) 16:00~18:00	전문	전략적 경영의사결정	고성석 교수 (전남대 건축학부)		2시간	30,000원
10월 (예정)	미 정	윤리	건축사의 역할과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	최혜영 교수 (전남대 사학과)	미정	1시간	무료

- (3) 교육신청기간 :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 (4) 출석인정
 - ① 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 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 ②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출석체크
 - ①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6) 수강신청 절차
 -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 ③ 교육과정안내 : 실무교육 선택 ⇒ "건축사회선택"에서 "광주건축사회"선택 ⇒ 교육일자 확인 후 각 과목명 클릭
- * 광주건축사회 선택 후 "신청 중" 클릭 후 선택 신청도 가능
- (7)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전주완산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 지난 4월 14일 완산경찰서 회의실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위한...



전라북도 전주시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지난 4월 14일 완산경찰서 회의실에서 전주완산경찰서와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전주시건축사회 이길환 회장 및 임원들과 장하연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에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 나가기로 약속했다.

셉테드(CPTED)란,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법으로, 이 협약에서는 전주 시내의 건축 및 도시계획 시설 설계시 셉테드를 적용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설계반영 사항은 건물 출입문, 후문 등 CCTV 및 번호키 설치와 도시가스 배관 가시철폐(방범덮개) 설치, 검침용 계량기 외부설치, 건축물의 측면, 후면,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적절한 조명 설치 사항이다.

전북 익산시, 상반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 오는 5월 27일까지... 점검 대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건축물

전라북도 익산시가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이행과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실시한 건축물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된 건축물 31개소이다.

시는 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조서의 적합여부, 사용승인 이후 가구수 및 세대수 불법 증설여부, 무단용도변경 여부, 대지 내 부설주차장 및 조경의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북 순창군, 전국최초 신한옥형 '금과어린이집' 완공

- 전통 한옥의 미와 현대 건축의 실용성을 융합한 한옥형 어린이집



전통 한옥의 미와 현대 건축의 실용성을 융합한 전국 최초 신한옥형 어린이집인 '금과어린이집'이 완공됐다.

지난 4월 20일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방축마을에서는 '신한옥형 금과어린이집' 준공식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한 금과어린이집은 9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446.17㎡로 만 0세부터 5세를 대상으로 3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4실, 유희실, 식당,

강당, 천방지축 실내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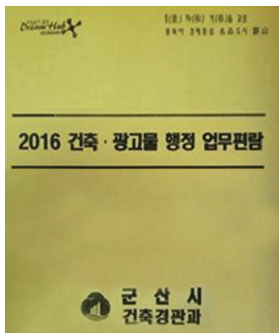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인 금과어린이집은 기둥, 보 등의 주요구조부가 목구조 방식이고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의 현대적 건축기술을 가미한 복합구조로 가변성과 공간 활용도가 높다. 또 한국 전통미를 계승하고 재해석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요소 등을 창조적으로 반영해 전통한옥의 아름다움은 물론 현대적 감각도 빼어나다는 평이다.

또 당갈막이 신기술 및 건식공법을 적용해 시공 성능 및 단열성능이 향상되는 등 실용성도 돋보인다. 신공법을 적용해 전통한옥대비 약 80%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순창군은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모과제인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모델개발 및 구축사업 유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으며 국비를 포함해 총 13억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전북 군산시, 건축·광고물 행정 업무편람 제작

- 개별업무에 대한 관계법령, 목적, 내용, 처리절차, 각종 양식 등 수록



지난 4월 14일 전라북도 군산시 건축경관과는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의 업무처리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집약한 '건축·광고물 행정 업무편람'을 자체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업무편람은 개별업무에 대한 관계법령, 목적, 내용, 처리절차, 각종 양식 등을 수록했으며, 전반적인 업무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인사발령 등에 따른 담당직원 변경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선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해 평소 생소하고 어려웠던 건축·광고물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향상과 공공증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험장소 발표

- 오는 5월 22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서 오전 10시부터 160분간 실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는 5월 22일에 실시할 2016년도 건축사예비시험의 장소를 발표했다. 시험장소는 홍익대학교(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이며,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160분간 연속으로 실시된다.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국가인정증명서)과 함께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완료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건축 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4과목이고 객관지 4지 선다형이며,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시 합격이다.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공고대

- 준공부문 6월 3일까지, 계획부문 5월 27일까지 신청접수

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올해 작품공모가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신인등용의 장으로써 한국 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건축사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

응모부문 및 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임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응모불가
	○ 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돼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정부포상업무지침 변경에 따라 추후 공지 예정
□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응모자격 :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응모방법	
□ 준공건축물부문	○ 인터넷 참가신청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1차 사진접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 실시
□ 계획건축물부문	○ 작품주제 : "Social platform" -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건축
	○ 인터넷 참가신청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1차 작품계획안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3차 심사 실시
	○ 1팀 3인 이내, 1인당 1작품 참여로 제한

작품접수	
□ 준공건축물부문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6. 3.21(월) ~ 6.3(금) 09:00~18:00 ☎ kaa.kira.or.kr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 : 2016. 6. 8(수) ~ 6. 9(목) 09:00~18:00 시간임수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계획건축물부문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6. 5. 24(화) ~ 5. 27(금) ☎ kaa.kira.or.kr
	○ 1차 작품접수 : 2016. 6. 1(화) ~ 6. 2(수) 09:00 ~ 18:00 시간임수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2차 작품접수 : 2016. 7. 12(화) 09:00~18:00 방문접수 ☎ 3차 작품설명 프리젠테이션 심사일은 추후 공지

시상내용	
□ 준공건축물부문	-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

상명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대상(4점)	사회·공공부문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민간부문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대통령상	
	일반주거부문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본상(4점)	사회·공공부문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민간부문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국무총리상	
	일반주거부문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 수상자 트로피(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및 건축물부착용 명판(건축주) 수여

- 계획건축물부문
- 대 상(1점) : 상금 5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 최우수상(3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해외건축탐방
- 우수 상(8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입 선(15점 내외) : 상금 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광고 및 구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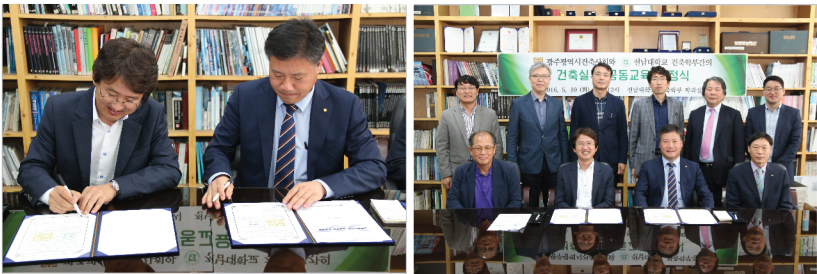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 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 예금주: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광주건축사회, 전남대학교 건축학과와 공동교육 협정식 가져

- 지난 5월 10일 전남대 건축학과 학과실에서... 건축실무 수업 등 지원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지난 5월 10일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학과실에서 건축학과(학부장 이효원)와 건축실무 공동교육 협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광주건축사회를 대표하여 정명철 회장과 김동선, 정상채 부회장, 전남대 건축학과를 대표하여 이효원 학부장과 주석송 교수, 오세규 교수, 유우상 교수, 한승훈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협정서 서명을 통해 전남대 건축학과에서는 건축실무 수업의 전체적인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진행 및 평가를 시행하며, 광주건축사회는 위탁을 받아 건축실무 수업 일정 부분의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회원 및 외부 초청강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은 공동학술연구와 강의, 심포지엄, 세미나, 공동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이번 협정식을 계기로 광주지역 여러 대학 건축 전공학과와도 건축실무 공동교육 협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건축사회,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MOU 체결

- 지난 5월 11일 광주건축사회관 소회의실에서... 기술자문 등 업무교류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5월 11일 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원장 맹준호)과 업무교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양 기관이 녹색, 에너지건축분야의 동반자로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해당분야의 기술자문교류와 전문지식 교류 연구 및 교육활동의 공동 수행에 협력하도록 했다.

정명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은 물론 광주건축사회원들의 녹색, 에너지 건축설계 관련 업무에도 많은 도움과 지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12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 축구대회 부산서 열려

- 지난 4월 29일 기장월드컵빌리지에서... 경기 흥팀 우승, 광주는 4강에



제12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 축구대회가 지난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부산 기장월드컵빌리지에서 개최됐다.

전국건축사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4개조 총 23팀이 참가했으며, 광주와 전남, 전북 각각 1개 팀씩 구성하여 대회에 출전했다.

치열한 경기 끝에 경기 흥팀이 우승을 대구팔공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광주팀은 아쉽게도 4강에 진출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한편 이번 축구대회 개최식에 대한건축사협회 임원진과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전남건축사회 박용묵 회장, 전북건축사회 전병갑 회장 등 17개 시·도건축사회장들이 직접 참석하여 각 지역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2016년도 APEC등록건축사 등록갱신 안내

- 오는 5월 18일까지 서류접수, 심의결과 5월 30일 발표

올해 APEC등록건축사 등록갱신 계획이 공고됐다. 신청자격은 기존 APEC 등록 건축사 중 미갱신자로,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 자격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사 실무교육을 36시간 이상 이수하고, 신청 직전 3년 중 2년 이상 건축사사무소 운영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이다.

제출서류는 APEC등록건축사 등록갱신 신청서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축사사무소 운영 사실확인서,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증명서, 등록갱신비 24만원 등을 구비하여 오는 5월 18일까지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사무처(02-3415-6888/김영진 대리)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 공지사항 178634번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6년도 상반기 도시재생투어 실시

- 오는 6월 25일 안양권역 답사, 5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

광주광역시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2016년도 상반기 도시재생투어가 오는 6월 25일 진행된다.

이번 도시재생투어 답사지는 경기도 안양권역으로, 안양예술공원과 김중업 박물관, 광명동굴 이다. 참가대상은 건축사 및 소속사무소 직원, 교수 및 학생, 공무원 및 일반시민으로 150명 선착순 접수를 받으며, 참가비는 일반 20,000원, 학생 15,000원이다.

참가 희망자는 5월 31일까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문의/062-714-2565)으로 접수하면 된다.

건축사협회 후원으로 광주전남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교례회 열려

- 전남일보 주최, 지난 4월 25일 광주 호텔무등파크 컨벤션홀에서



전남일보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광주, 전남건축사회가 후원한 '2016 제20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가 지난 4월 25일 광주 호텔무등파크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을 비롯한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전남건축사회 박용묵 회장과 광주전남 20대 총선 당선자와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및 농협 지역본부장, 지역조합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교례회에 참석한 당선자는 광주전남 국민의당 장병완(동남 갑), 박주선(동남 을), 송기석(서구 갑), 천정배(서구 을), 김경진(북구 갑), 최경환(북구 을), 김동철(광산 갑), 권은희(광산 을), 이용주(여수 갑), 주승용(여수 을), 손금주(나주화순), 정인화(광양곡성구례),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윤영일(해남완도진도) 당선자 등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당선자가 각각 참석했다.

또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김성환 동구청장, 김성 장흥군수, 안병호 함평군수 등의 다수의 지자체장과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건축사협회 참석자들은 당선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덕담을 나누었으며, 향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에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2016년도 전국 건축사 지도자 대회' 를 개최

- 지난 5월 2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등 참석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5월 2일과 3일, 양일간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2016년도 전국 건축사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1만여 건축사 회원들을 대표해 대한건축사협회 임원 및 17개 시도건축사회 회장과 사무국·처장, 124개 지역건축사회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협회발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대한건축사협회장 공약사항중 5대 핵심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8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별 토론 후 그 결과를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축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토부 건축정책관 강연과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안내 및 기념촬영 등이 열렸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향후 추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 상반기 산행 안내

- 오는 6월 11일 토요일, 대둔산 도립공원 산행, 6월 6일까지 신청 접수

일	자	2016년 6월 11일 토요일
장	소	대둔산 도립공원(전북 완주)
시	간	오전 10시 10분 행사시작
등	반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40분
총	회 및 하산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공원 내 한발식당)
산	행 코	대둔산 주차장 → 입장 매표소 → 금강계곡 → 동심정휴게소 → 전망대 → 금강다리 → 삼선계단 → 마천대(정상 877.7m) → 원점회귀 산행
연	락 처	02-937-8002(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2016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지난 4월 21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신임 이사 선출 의결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은 지난 4월 21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1개의 부의 안건을 의결했다.

재적조합원 398명중 250명이 참석(본인 88명, 위임 162명)하여 임원개선의 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총 5인의 신임이사를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신임이사로는 김곤 건축사(선택 건축사사무소), 이혜란 건축사(나래 건축사사무소), 김경우 건축사(은 건축사사무소),한명석 건축사(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총 4인이다.

에너지절약설계 지역별 단열기준 변경적용 시행

- 7월 1일부터 적용... 남부지역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안내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5	145	165	185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0	95	110	12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0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타지역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및 기타 관련내용은 광주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78447번을 참고하시기 바람

건축사회 관련 5월·6월 주요 행사 일정 안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전라북도건축사회 건축사 실무교육(윤리교육) 실시

- (1) 교육 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16:00~17:00
 - (2) 교육 장소 : 전주 오벨리스 5층 -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3(효자동1가 410-1번지)
 - (3) 수강신청기간 : 2016년 5월 12일(목)~5월 25일(수)
 - (4) 교육 과목
- | 교육구분 | 과 목 | 모집인원 | 교육인정시간 | 교육비 | 강 사 |
|------|--------|------|---------|--------|---------------|
| 윤리교육 | 건축사 윤리 | 350명 | 윤리교육1시간 | 10,000 | 남해경(전북대학교 교수) |
- (5) 수강신청 절차
 -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하여 협회 ID / PW 로 로그인
 - ② 교육과정안내 => 실무교육선택 => 건축사회선택에서 "전라북도건축사회" 선택 => 개설과목 확인후 과목 선택하여 수강신청 => 결제완료 => 수강신청결과 종료
 - (6) 출석인정
 - ① 교육 시작후 14분이후 입실시에는 교육 불참으로 처리되며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음.
 - ②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

광주건축사회 동정

- *입회**
- 송철복 건축사 / (주)성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화운로 310 (광천동,성동빌딩),7층
- 최진화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현산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매월동,매월 종합상가),205동 205호
- *폐업**
- 배석순 건축사 / 동서 건축사사무소
- 김 성 건축사 / (주)성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김정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삼인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72, 6층(수암동)
- 정명환 건축사 / 디에이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마들로 67, 자유킴퓨터 3층
- *부고**
- 양해성 건축사 / 앤드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04월 17일 (일)
- 최진화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현산 시부상 04월 21일 (목)
- 김한일 건축사 / 신라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04월 22일 (금)
- 박홍근 건축사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04월 27일 (수)

전북건축사회 동정

- *입회**
- 김만민 건축사 / ㈜대성 건축사사무소 전북 익산시 선화로 259(남중동)
- *변경(소재지)**
- 이행욱 건축사 / 새롬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4길 13(효자동2가)
- 최만규 건축사 / 미, 돌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뱃꽃1길 10(진북동)
- 장기중 건축사 / 지산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12길 25(금암동)
- *변경(소재지, 상호)**
- 서문용진 건축사 / (유)수림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03(송천동1가)
- *결혼**
- 김중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칸 본인결혼 - 04월 16일 (토)
- *부고**
- 장동석 건축사 / 다빈치 건축사사무소 빙부상 - 04월 24일 (일)

법 / 령 / 정 / 보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 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4 일(수)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은 위탁사업협약서와 사업대행협약서의 서서만 규정

- 1. 실태조사 출입절차 현실화**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정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기존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자체를 주된 보급처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일시, 출입일시 등을 14일 이상 공고한 후 출입 가능)
- 2. 사업성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제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존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함)
- 3. 위탁사업·사업대행시 필요 절차 마련**
위탁사업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관련 해당 지자체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 위탁 또는 대행사업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명시, 수수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위탁개발사업과** 동일 수준에서 사업자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예상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재산가치 또는 임대료 [예상지출액]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철거·공사·조사비용, 세금, 위탁수수료 등)** 위탁수수료 종류 및 수수료: ① 개발수수료(총 건축면적의 4 ~ 5%), ② 분양수수료(분양가액의 2 ~ 3%), ③ 성과수수료(정산후 잉여금의 50% 이내)
- 3.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추진 절차 마련**
방치건축물 정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58, 4836, 팩스: 044-201-5574)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지정 절차 개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전에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나, 앞으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16.3.30.),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시행,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 주도로 심의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였다.
-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에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 가산점 기준: (80%이상) 5점, (65% ~ 80%) 4점, (50% ~ 65%) 3점, (30% ~ 50%): 2점)
-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하였다.
-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전북 5·6월 지역축제 안내

- ▶ 05. 13 (금) ~ 05. 16 (월) 남원춘향제 2016 - 전북 남원시 광한루원 및 오천 일원 등
- ▶ 04. 23 (토) ~ 05. 22 (일) 남원 바래봉 철쭉제 2016 - 전북 남원시 지리산 바래봉 및 허브밸리 일원
- ▶ 05. 20 (금) ~ 05. 29 (일) 곡성 세계장미축제 2016 - 전남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 ▶ 04. 20 (수) ~ 06. 25 (토) 광주 호남예술제 2016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일원

□건축허가관련 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상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정명환
부편집인 강동영,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전담기자 광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박신남, 강필서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이광영, 윤미순, 백재봉, 박주현, 이종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주)디자인포유 T.062)385-9395
광고신청 T.062)521-0025



표지설명

본지 건축문화사랑에
신임 편집인과 편집위원 취임으로
신(新)바람이 신나게 불어온다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700,000원
- 하단광고:350,000원
- 하단1/2광고:200,000원
- 구독료: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 ~6 F. 062)528-0026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1만원부터
- 후원방식:신협 131-009-471898(예금주:광주건축사회)
- (주)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 정명옥 건축사/ 팬타그램 건축사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임용, 인사
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Tel:062-521-0025)
E-mail: gkira@empal.com

- 1.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 로 제출.

세상사는 느낌



박철규 사원
전남 여수 KCC

인간의 죄악을 세밀하게 표현한 영화 '세븐'을 보고...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강력범죄에 영화에서도 흥행의 단골 소재로 등장 시키는 '죄악'은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요구하기도 한다.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악의인지 15년 전 대학시절 비디오방에서 보았던 한편의 영화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 영화는 1995년 미국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세계적 미남 배우 브래드 피트와 흑인 연기파 배우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범죄, 스릴러 영화 '세븐'(Seven)이다.

줄거리 내용은 은퇴를 일주일 앞둔 관록의 형사(모건 프리먼)와 신참내기 형사(브래드 피트)가 파트너가 되어 연쇄살인사건을 파헤치게 되는데 범인이 성서에 등장하는 7대 죄악인 '탐식', '탐욕', '태만', '욕정', '교만', '시기', '분노'와 연관된 인물들을 관련된 죄악으로 차례대로 죽여 나가지만 두 형사는 실마리를 놓치고, 결국 범인이 자수를 하면서 7대 죄악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을 그렸다.

영화를 보면 만연한 타락과 공포를 암시하듯, 주요 화면들은 내내 불길한 징후들로 가득 차 있다. 시종일관 질척한 비가 내리는가 하면, 경찰들이 추격전을 벌이는 도심 곳곳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 영화 속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현실속의 모습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15년 전과 2016년 현재 필자가 느끼는 솔직한 감정이다. 약 20년 전에 제작된 영화가 그 당시를 비롯한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시대를 담고 있는 것에 인간의 죄악은 시대와 상관없이 가장 '근본적'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태초부터 지구상에 인간이 멸종하게 될 그 순간까지, 계속될 죄악을 위해 우리 인간은 저항하고 해결해 왔다. 종교와 법을 만들고 암묵적인 규칙과 함께 스스로를 죄악에 방어하게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맞게 그 법과 규칙이 적용되지 못한 경우를 근근이 보여주고 있다.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부유한 재벌, 욕정에 눈이 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연인들, 분노 조절을 못해 지하철에 불을 질렀던 노인,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로 칼을 휘두른 청년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 그리고 술과 정신이상, 심신미약까지... 온갖 죄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핑계와 별을 가볍게 하는 기준을 대며 피해자의 아픔은 고려하지 않은 판단과 판결로 단죄가 아닌 끝임 없는 죄악을 양성하고 있다.

법이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선다는 말이 있듯이 돈이 많거나 적은, 그리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엄격한 법 적용이야 말로 악의에 맞서 인간의 정의를 세우는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영화 끝의 머리, 내레이션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헤밍웨이가 말했다. 세상은 멋진 곳이고 싸워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 문장의 의미에 동감하며 악의를 물리치고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은 모든 인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본다.

한편의 시



태완섭 사무국장
전라북도건축사회

강물

누렇게 사남던 흙탕물도
많디많은 응답샘도
조약돌 허약하게 드러내던 시냇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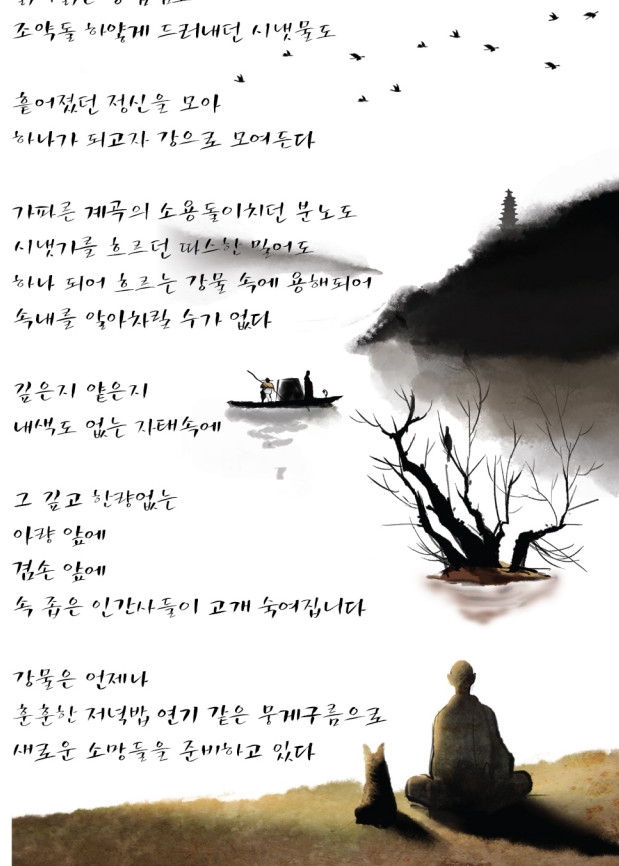
홀어졌던 정신을 모아
하나가 되고자 강으로 모여든다

가파른 계곡의 소용돌이치던 분노도
시냇가를 흐르던 파스한 맑어도
하나 되어 흐르는 강물 속에 용해되어
속내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

깊은지 얕은지
내뱉도 없는 기태속에

그 깊고 한량없는
아랫물에
검은물에
속 좁은 인간사들이 고개 숙여집니다

강물은 언제나
흔들린 저녁밥 연기 같은 부계구름으로
새로운 소망들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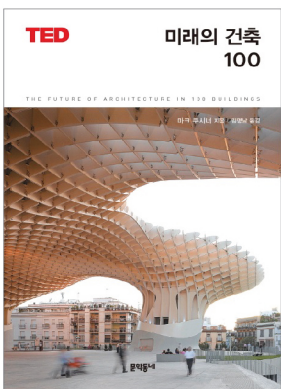


책 소개

미래의 건축

미래의 건축 100 마크 쿠시너 저
| 김명남 역 | 문학동네 | 2015.10.14

이신혜 직장인
전남 순천시 삼산동



우리 곁에 훌쩍 다가온 새로운 건축의 시대. 건축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우리보다 앞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건축물과 건축사에게 던지는 대중의 질문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는 오늘날의 세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것이며, 건축 현상이 보여주는 최신의 변화상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나은 건축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도 파악해볼 수 있다.

극한의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건축, 재생을 넘어 재창조로 나아가는 건축, 약자를 배려하고 심신을 치유해주는 건축, 독특한 외형으로 기능과 정체성을 극대화한 건축,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건축,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건축, 사회적 촉매로 기능하는 공공 건축, 첨단 공법으로 실현될 미래형 건축, 책에 소개된 한국의 건축물 두 곳도 눈길을 끈다. 컨테이너로 만든 공공예술시설인 안양의 'APAP 오픈스쿨', 주변 전통건축들과의 조화를 모색한 서울의 '국제갤러리 K3' 가 그것이다.

생생한 사진과 워트 넘치는 글로 전 세계 100여 곳의 건축 사례를 소개하는 이 책은, 오늘의 건축이 어디까지 왔는지, 미래의 건축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가능하게 해준다.

좀더 친근하고 좀더 똑똑하고 좀더 자연친화적인 건물을 만드는 데, 이제 건축의 파트너인 대중이 함께 할 때다. 『미래의 건축 100』은 그 참여의 길에, 작지만 효과적인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건축사 미술작품 소개



김유지 건축사 작
광주/(주)유지 건축사사무소



무등산아랫마을 Oil on Canvas 2015



- ✓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보일러가 나왔다!
- ✓ 기계장치 및 보일러실이 필요없다!
- ✓ 유가대비 60%이상 난방비 절감!
- ✓ 음이온과 원적외선 방사열이 나온다!
- ✓ 사용중인 보일러 난방을 초절전 전기 난방으로 바꿔드립니다!



초절전온수관 신규시공 모습(종합, 교육시설)



초절전온수관 신규시공 모습(복지관)



황토집 신규시공 모습(펜션)

건축사와 함께! 신로운 동행!

국민에게 신뢰를! 건축사에게는 희망을!
건축사공제조합이 함께합니다!

www.kira-fc.or.kr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6층
Tel. 02-3473-0900 Fax. 02-3473-0921

